

# 전남대병원 유치전 벌써부터 뜨겁다

### “유치 땀 지역 가치 상승” 광주 남구·전남 나주 등 ‘리브콜’

#### 증개축·이전 신축 등 새 병원 건립 방안 1~2년 내 결정

전남대병원이 최근 새병원 건립추진단을 발족하고 병원 증개축과 이전·신축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자 새병원을 자신들의 지역에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병원 측은 현 상태에서의 증개축과 완전 이전·신축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들은 미리 이전할 경우에 대비해 유치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전남대병원 유치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전남대병원 신축·이전 논의가 불거졌을 당시 나주시는 병원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각종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하는 등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광주 광산구와 남구 등도 전남대병원 유치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이에 반해 광주 동구는 도심 공동화 가속화를 방지하고, 모든 시민들의 편리한 접근성 등을 들어 존치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렇게 광주와 인근 지자체가 전남대병원 유치에 목을 매는 이유는 최소 20만~30만㎡(6만~10만평)에 달하는 병원 부지, 상주 인구 3000~4000명 규모의 호남 최대 병원이 들어설 경우 해당 지자체의 위상은 물론 경제적 부가까지 상승으로 인한 지역 산업지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광주 남구가 가장 먼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이 광주 남구 빗고을 컨트리클럽(CC) 부지가 최적지라는 의견을 들고 나왔다. 황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제273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대병원 신축 이전 부지는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옆 빗고을 컨트리클럽 자리가 최적의 장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근에는 이미 빗고을전남대병원과 빗고을노인건강타운 등이 자리하고 있다. 복지관과 후생관, 주차장 등을 고려하면 최적지의 입지 조건”이라면서 “신축 이전할 경우 전남대병원을 남구에 유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또 응급환자 이송에 필수적인 순환도로 접근성, 화순과 나주의 중간 지점, 남구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협연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어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1일 ‘전남대병원 신축·이전 최적지는 나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유치전에 본격 돌입했다.

나주시는 전남지역 의료 환경 개선과 지리·교통적 여건, 산업적 역량 연계 등을 고려해 나주가 전남대병원 새 병원 유치에 있어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전남대병원이 최근 새병원 건립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자 이전·신축에 대비한 광주 인근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나주는 광주와 전남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인데다 광주·무안공항과 인접해있고 고속열차가 정차하는 한편 빗가람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 오는 2022년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 등을 고려하면 전남대병원 입지의 최적지라는 주장이다.

앞으로 광주 광산구나 광주 인접 지자체들의 전남대병원에 대한 리브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병원은 향후 늦어도 1~2년 내에 현재 위치

에서 증개축을 할 것인지, 이전 신축을 할 것인지 등 새병원 건립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앞으로 병원 관계자와 의료인은 물론 지역민들과 함께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에 대한 지혜와 의견을 모아,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 세대를 대비한 전남대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 유·초등교사 임용시험 남성 99명 등 396명 합격

전남지역 2021학년도 유·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결과 396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중 초등교사 남성 합격자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결과 총 1240명이 지원했으며, 이중 396명이 최종 합격했다.

모집 분야별 합격자는 유치원 69명, 초등학교 275명, 특수학교(유치원) 3명, 특수학교(초등) 49명이다. 초등학교 합격자 275명 중 남성 합격자 비율은 36%(99명)로 나타났다.

최종 합격 여부는 도 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응시자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2일부터 5일까지 도교육청에 우편으로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도교육연수원(초등교사)과 도유아교육진흥원(유치원 교사)에서 진행되는 신규 교사 임용후보자 연수에도 참여해야 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교육청 정기인사

### 교사 2498명 등 2677명

광주시교육청은 3월 1일 자 교육공무원 267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일 단행했다.

<인사명단 21명>

학급별 인사대상은 교(원)장·교(원)감·교육전문직원 179명(유치원 17명, 초등 77명, 중등 85명), 교사 2498명(유치원 67명, 초등 1329명, 중등 1102명)이다.

주요 인사 내용을 보면 창의융합교육원장에 김득중 광주과학고등학교 교장, 학생교육원 원장에 강구 장덕중학교 교장, 시교육청 정책기획과장에 장상민 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에 김형태 빛고을고등학교 교장, 중등교육과장에 백기상 광주제일고등학교 교장,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에 이병관 광주체육중학교 교감이 각각 전보됐다.

이승우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학교와 학생 자기 설계 중심의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경험과 의지를 갖춘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특히 함께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각 기관이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구인난·구직난 동시 해결”

### 광주 남구, 취업상담센터·찾아가는 job 발굴단 운영

광주시 남구가 지역 기업체를 돌며 중소기업들의 구인난과 주민들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구는 ‘남구 취업상담센터’와 ‘찾아가는 job 발굴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취업상담센터는 직업상담 전문가 2인이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함께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찾아가는 job발굴단은 지역 중소기업을 비롯해 광주지역 기업체를 순회 방문하면서 채용 정보를

수집해 취업상담센터에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남구 취업상담센터와 찾아가는 job발굴단을 통해 106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주민과 기업 등 총 3441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남구 관계자는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등 기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구인난 해소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 광주 비인가 교육시설 6곳 추가 확인

### 결석학생 전수조사서...광주교육청 방역 점검기로

광주지역 내 비인가로 운영중인 교육시설 6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비인가 교육시설인 광주TCS국제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결석학생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 내 비인가 교육시설 6곳을 추가로 확인했다.

시 교육청은 앞서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9개의 대안학교를 포함 24곳의 비인가 교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 6곳을 추가로 확인해 총 30곳의 비인가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광주시와 5개구, 광주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구별 점검팀(5개조 30명)을 편성,

이들 시설에 대한 합동 방역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방역지침 준수, 집단급식소 운영 여부, 학교명칭 사용과 학원 등록 여부 등이다.

시 교육청은 이들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점검을 통해 제도권으로의 유도 또는 계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항구 광주시교육감은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지도 점검과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교육청은 TCS 국제학교 등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할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학교급식용 쌀 공급가격 더 올려달라”

### 광주교육청 가격 결정에 지역 친환경농민단체 반발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2021학년도 학교급식에 공급할 친환경 쌀의 공급 가격을 결정한 가운데, 지역 친환경농민단체가 “쌀값을 더 올려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들은 1일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민의 목숨값인 쌀값 결정은 농민과 직접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친환경급식 예산과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

우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앞서 시중 유통 가격과 타 지역 결정 가격 등을 고려, 친환경 무농약 쌀 20kg 공급가격 6만 4000원을 제시했다.

시 교육청은 최근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협력업체 선정위원회 심의를 열어 2021학년도 학교급식에 공급할 친환경 쌀의 가격을 6만2000원(20kg 공급가격 기준)으로 결정했다. 전년도 대비 10.71% 인상된 금액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

## 5·18 민주광장, 지역민 쉼터로 정비

광주시 동구가 5·18민주광장을 지역민들의 쉼터로 정비한다.

1일 동구에 따르면 5·18민주광장 일원인 민주의중각 주변 경관개선 및 아트(Art)벤치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5·18민주광장(총면적 8188㎡)은 시민들의 도

심 속 쉼터로 자리잡아왔으나 마땅한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동구는 ▲중각 주변 환단정비 및 경관조명 설치 ▲아트벤치 설치 ▲편의시설 구축 등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청와대(5년)·강원랜드(3년) 납품점

# 다향굴비

대표 박희순·이용철

우리 업체는 100% 국내산 참조기만 엄선하여 최상의 품질과 신용을 바탕으로 하며, 국내산 천일염(5년 이상 숙성)으로 염장하여 항상 고객님의 위해 더욱 맛 좋은 굴비를 만들겠습니다.

문의 ☎ 061-356-6798

☎ 010-5356-4990

마음의 거리 좁히는 *Best*

코로나 극복하는 명절!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주문하러가기		
<p>굴비 (가정용)</p> <p style="background-color: #f1c40f; padding: 5px;">70,000~130,000원</p>	<p>굴비 (선물용)</p> <p style="background-color: #f1c40f; padding: 5px;">100,000원부터~</p>	<p>보리굴비</p> <p style="background-color: #f1c40f; padding: 5px;">80,000~100,000원</p>